



2026. 7. 3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회사채 발행대신 대출" 은행 달려간 대기업

매일경제 <https://zrr.kr/r19V8A>

회사채 금리가 6개월 만에 1%p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커져 다시 은행 문을 두드리는 대기업이 늘어나
대기업 여신 취급이 많은 5대 은행 대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6월 말 기준 190조3641억원까지 불어나

1년새 10분의 1로 뚫...대환대출 '유명무실'

한국경제 <https://zrr.kr/oAdP2H>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이용자 수는 1000명에 불과... 대출액은 20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7.5% 감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갈아타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정부 규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마저 감소하면서 이용자가 예년의 10% 수준으로 축소된 것

인터넷은행, 수신 상품 금리 최대 0.2%p ↑ ..."시장금리 흐름 반영"

뉴스1 <https://zrr.kr/jWiOqy>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오는 3일부터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0%p 인상
최근 은행권의 단기 예·적금 금리 인상 흐름과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금리인상기에도, 당국이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내렸다...4년만에 최저

이데일리 <https://zrr.kr/tMpBwF>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8.97%~15.27%로 고시... 4년 만에 최저 수준
이로 인해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금융권은 마진축소로 인한 수익성 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

외인 투매 받아낸 개미 자금 바닥났다...예탁금 120조 턱걸이

뉴스1 <https://zrr.kr/bH7dpq>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20조 837억 원으로 집계... 이는 지난 4월 16일(119조 743억 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2일 코스피가 8% 가까이 또다시 폭락하면서 그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온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지속될지 주목

상반기 IPO 역대급 한파...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이데일리 <https://zrr.kr/k9hP8H>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사(스팩합병·이전상장·코넥스 제외)는 17개사에 그쳐.. 이는 지난해 상반기 당시 38개사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
중시 자금이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株)에 집중된 것은 물론 당국이 상장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예고까지 나오면서 공모 매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

'1,200%룰에도 익월 900~1,050% 유지'...대형 GA 수수료 경쟁 계속된다

보험매일 <https://zrr.kr/Z8bde4>

대형 GA 대부분이 설계사 모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익월 지급 규모를 900~1,05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5세대 실손보험 '대전환'...설계사들 '큰 장'에 보험 끼워팔기 기승

뉴스1 <https://zrr.kr/4EzHVk>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재가입이 본격화하면서 보험 영업 현상이 분주
올해 말까지 약 50만 건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이 만기를 맞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은 실손보험 재가입 과정에서 보험 '끼워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은행은 뛰는데 보험은 손 뺐다...스테이블코인 '무대응'

매일경제 <https://zrr.kr/RNeygr>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만 보험은 계약 기간이 길고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

권대영 "원화코인 도입 포함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낼것"

서울경제 <https://zrr.kr/gWhYn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블록체인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호소가 이어지면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